

일. 회개:

❖ 회개를 미룸.

-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바빴습니다! (눅 10:40-41).
- 우리도 마르다와 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가르쳐 주시며 회개하라고 호소하실 때, 사탄은 온갖 계획들, 근심, 그리고 많은 방해 끈들로 마음에 가득 채워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겔 33:11). 우리의 죄를 더러운 옷에 비유하시며(사 64:6) 그분의 정결한 옷과 나의 더러운 옷을 맞바꾸자고 하십니다(슌 3:4).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옷입니다(계 7:14).

❖ 참 회개.

-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고후 7: 10)
- 우리는 자신의 죄로 뼈아픈 결말을 맞이할 때 후회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거나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더라도 내가 죄 지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슬퍼하고 용서받고 싶은 깊은 갈망이 일어날 때, 비로서 나는 베드로가 했던 것 같은 진정한 회개와 마주하게 됩니다).
- 우리가 죄 지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깊은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으시고...쓰라린 상처를 입히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십니다(호 6:1).

❖ 회개하라는 호소.

-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똑 같은 기별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 3:1-2; 4:17).
-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행 2:38; 3:19). 그러면 회개와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 (1)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십니다. (롬 2:4)
  - (2) 우리의 응답은
    - (a) 저지른 잘못들을 진심으로 깊이 슬퍼하며
    - (b) 죄를 버리려는 정직한 결심을 함
  - (3)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골 1:13-14.)
- 회개와 용서는 언제나 우리를 개혁, 곧 죄 짓기를 멈추려는 태도의 변화로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 5:14).

이. 용서:

❖ 용서의 은혜.

- 강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죄 용서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며, 즐겨 용서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시 86:5; 출 34:6-7).
- 사랑에 이끌린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엡 2:4-5).
- 우리가 자기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죄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히 12:1-2).

❖ 용서의 옷.

-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으며,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의 결점이 없습니다(계 19:8; 엡 5:27).
-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합니다(계 19:8). 그러나 이 의로움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계 7:14).
-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벌거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벌거 벗었습니다(창 3:7-10).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옷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혼인 예복’을 상징합니다. 곧 우리의 죄를 말끔히 지워 없애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입니다(창 3:21; 시 51:7-10).
-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 22:1-14).